http://dx.doi.org/10.14347/kadt.2015.37.3.145

한국 치과기공사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이 선 경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A Study about Preparation of old age of Korean dental technicians

Sun-Kyoung Le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ed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of Korean dental technicians.

Methods: A total of 778 dental technicians were selected by proportional stratified by region compared to extraction sampling from a list of Korea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in 2012. The final sample size was 386. Questionnaires consisted of 9 general characteristics, recognition of old age 4, and preparation of old age 9 on a Likert 5 scale. Cronbach's alpha was 0.784 in the study. All statistical analyzed were performed using SPSS 14.0(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Ver. 14.0. Chicago, IL, USA).

Results: Factors affecting the aging preparation is gender, age, clinical career, work place($p<0.001$).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preparation for old age of Korean dental technicians was very important and the preparation must be connected with the social welfare policy.

Key words : Dental technician, Old age, Retirement plan

* 2015년 경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교신저자	성 명	이 선 경	전 화	010-3364-6522	E-mail	oksk3737@hanmail.net
	주 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46. 경동대학교 신의관 2층 치기공학과				

접 수 일	2015. 7. 30	수 정 일	2015. 9. 3	확 정 일	2015. 9. 10

Ⅰ. 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인구의 12.2%이며, 2050년에는 37.4%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심신의 노화와 함께 사회적인 여러 변화와 단절 등을 겪으며 대책 없는 노후생활로 접어드는 것이 현실이다(전혜성, 2014).

노년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노년기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노후에 대한 적응력을 높게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곽인숙 등, 2007). 노후에는 사회경제적 역할이 감소됨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소외감,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중 경제적 문제는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동시에 건강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김남순, 2009).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부각되는 이유는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이는 곧 근로소득의 격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의 노후대책은 노년기에 들어서기 이전에 미리 계획하고 달성되어야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곽인숙 등, 2007).

노인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금이나 노인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며, 더욱이 자녀의 노인부양이라는 전통적 보호체계도 매우 약해져가고 있다(성영애 등, 1997). 따라서 각 가계는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해야하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은퇴준비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속도와 수명의 연장, 직장인들의 조기 퇴직현상 등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 직장인들이 은퇴 전에 미리 은퇴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며,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노후 생활에 적응하는가 하는 것은 은퇴 이전에 개인이 갖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에 의해서 은퇴를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Maddox, 1970). 따라서 노년에 대한 준비는 은퇴 이후의 삶을 전망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 공표됨으로써 치과기공에 종사하는 사람은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치과기공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65년 제 1회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시험 후 50년이 지난 현재 면허취득자는 30,272명(김건상, 2011)으로 치과기공사 1세대는 노년기에 진입하였다. 복잡해진 직무환경 속에서 다양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과기공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주목해야할 문제로 인간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종사자들은 다른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고 하였으며(이경순, 1982), 치과기공사의 대다수가 업무과다,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민병국, 1989). 이직한 치과기공사들은 현재에 대한 치과기공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소규모 작업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직이 자주 이루어지고, 정년과 복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퇴직과 은퇴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이선경,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후 준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012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등록된 7,764명의 치과기공사 중 2012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의 목적으로 30부의 설문지를 편의 추출하여 발송하여 전화 및 독촉의 방법으로 25부를 회수하였으며, 예비 조사를 근거로 본조사용 설문지를 재수정한 후 1차 조사는 동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별 비례대비 층화 표본 추출

하여 778부의 설문지를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며, 그 중 13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응답된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유효설문지는 111부였다. 본래 계획하였던 회수율에 크게 못 미쳐 2차 조사를 계획하였다. 2차 설문 발송은 2012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집단을 지역별로 다시 층화하여 부족한 지역에 비례대비 층화 표본 추출하여 500부의 설문지를 다시 발송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310부였고, 부실 응답된 설문지 35부를 제외하고 275부를 사용하였으며, 1 · 2차 조사를 통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86부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도구는 Blakeley와 Ribeiro(2008)의 조사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하였으며(Blakeley J & Ribeiro V, 2008), 연구목적에 맞추어 예비설문 후 최종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내적일치도(Cronbach coefficient alpha)가 0.784로 나타났다. 설문문항은 노년에 대한 인식에 대해 4문항, 노후 준비 및 계획에 관해 9문항,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coefficient alpha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노후 준비에 대한 변수 중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노후 준비에 여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제 1종 오류의 수준을 0.05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4.0 통계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Ver. 14.0. Chicago, IL, USA)을 이용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64.0%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30~39세가 26.7%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서울이 42.2%, 경기 · 인천 21.5%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10년 미만이 40.2%로 나타났고, 협회 가입 여부는 62.2%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형태는 치과기공소가 75.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월 평균 순수입은 300~399만원이 29.1%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 외 부동산 소유는 없다가 73.3%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247(64.0)
	Female	139(36.0)
Age(years)	20~29	58(15.0)
	30~39	103(26.7)
	40~49	98(25.4)
	50~59	75(19.4)
	More than 60	52(13.5)
Education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313(81.8)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33(8.5)
	graduation as master/doctors	27(7.0)
	Etc.	13(3.4)

Characteristics		N(%)
Area	Seoul	163(42.2)
	Gyeonggido, Incheon	83(21.5)
	Chungcheongdo	28(7.2)
	Gangwondo	9(2.3)
	Jeonrado	27(7.0)
	Gyeonhsangdo	72(18.5)
	Jejudo	4(1.0)
Clinical Career(years)	Less than 10	155(40.2)
	10~19	106(27.5)
	20~29	73(18.9)
	More than 30	52(13.5)
Sign Association	No	146(37.8)
	Yes	240(62.2)
The workplace	Dental laboratory	290(75.1)
	Public enterprises	28(7.3)
	General Hospital	25(6.5)
	Dental Clinic	21(5.4)
	Etc.	22(5.6)
Average monthly income(10,000won)	Less than 200	79(20.5)
	200~299	97(25.1)
	300~399	112(29.1)
	400~499	54(14.0)
	More than 500	44(11.3)
Currently living in houses owned by other real estate	No	283(73.3)
	Yes	103(26.7)
Total		386(100.0)

2. 노년에 대한 인식

응답자가 생각하는 노년의 시점은 66~70세가 36.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60~65세가 30.1% 순으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60~70세를 노년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60~69세가 75.9%로 조사되었고, 직장의 정년 시기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66.8%를 제외하고, 60~65세가 21.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희망하는 퇴직 시기는 60~69세가 64.0%로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Recognition for old age

Items	Division	N(%)
The time of old age(ages)	60~65	116(30.1)
	66~70	142(36.8)
	71~75	91(23.6)
	76~80	24(6.2)
	81~85	8(2.1)
	86~90	2(0.5)
	More than 91	3(0.8)
Economic activity age(ages)*	30~39	2(0.5)
	40~49	6(1.6)
	50~59	62(16.1)
	60~69	293(75.9)
	More than 70	23(5.9)
Retirement time of work(ages)	40~49	2(0.5)
	50~59	45(11.7)
	60~65	81(21.0)
	none system	258(66.8)
Hope that retirement time(ages)	40~49	4(1.0)
	50~59	115(29.8)
	60~69	247(64.0)
	More than 70	20(5.2)
Total		386(100.0)

*경제활동 가능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과 향후 경제활동 가능 기간을 합하여 계산 하였다.

3. 노후 준비

노후 준비 필요성 및 계획을 보면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라는 응답이 86.0%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고,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과 준비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54.5%로 조사되었으며,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여유 금액이 없다는 응답이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는 연령은 20~29세가 49.0%로 조사되었다.

노후 경제 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8.0%로 조사되었으며, 공적 연금을 제외한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저축 및 이자가 33.6%, 사적연금이 29.6%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후 생활 준비금은 평균 7.9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급여에서 노후 준비금 비중은 5% 미만(28.5%), 금액으로는 월 20만원 미만(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and planning

Items	Division	N(%)
The need for retirement planning and preparation	Not very necessary	6(1.6)
	Not necessary	1(0.3)
	Usually	47(12.2)
	necessary	165(42.7)
	Very necessary	167(43.3)
Whether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Yes	176(45.5)
	No	210(54.5)
The reason are not planning and preparing for retirement	Public pensions	18(11.3)
	No amount of free	135(84.4)
	No financial difficulties	4(2.5)
	Etc.	3(1.9)
	Total	160(100.0)
When to start planning for retirement(ages)	20	28(7.3)
	20~29	189(49.0)
	30~39	151(39.1)
	40~49	15(3.8)
	50	3(0.8)
Satisfaction planning for economic retirement prepare	Very unsatisfied	6(3.4)
	Unsatisfied	44(25.3)
	Usually	110(63.2)
	Satisfied	12(6.9)
	Very satisfied	2(1.1)
	Total	174(100.0)
How Retirement pension, except for**	Savings	103(33.6)
	Private pensions	91(29.6)
	Real Estate rents	22(7.2)
	Severance pay	27(8.8)
	Stocks and Funds	32(10.4)
	Inheritance	19(6.2)
	Social assistance and child	6(2.0)
	Etc.	7(2.3)
Reserve for retirement(Billion)*	(range: 1~50)	7.9 ± 6.7

Items	Division	N(%)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funds in the total payroll preparation(%)	Less than 5	110(28.5)
	5~10	94(24.4)
	11~20	87(22.5)
	21~30	54(14.0)
	31~40	19(4.9)
	41~50	14(3.6)
	More than 51	8(2.1)
In preparing monthly amount for Retirement pay(10000won)	Less than 20	140(36.1)
	20~29	76(19.7)
	30~39	43(11.2)
	40~49	43(11.2)
	50~59	15(3.9)
	60~69	24(6.2)
	More than 70	45(11.7)
Total		386(100.0)

*Mean ± standard deviation
**Multiple responses

4. 노후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OR=1.65, CI[0.32~3.25]), 35세 미만보다 35세 이상이(OR=2.11, CI[1.09~3.54]), 임상경력 10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이(OR=1.84, CI[0.53~2.88]),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공기관(대학, 공무원, 연구원)(OR=2.53, CI[0.56~4.08]), 대학병원(OR=1.24, CI[0.34~3.21]), 치과병·의원(OR=1.91, CI[0.09~2.85])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노후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학 졸업생 집단과 비교하여 4년제 학사 집단이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노후 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월급여가 295만원 미만인 집단과 비교하여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집단이 노후 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집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후 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aging preparation

		Retirement preparation	
		OR	(95% CI)
Gender	Male	Reference	
	Female	1.65	0.32~3.25
Age(years)*	〈35	Reference	
	35≤	2.11	1.09~3.54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ion	Reference	
	University graduation	1.62	0.52~3.42
	Postgraduate later	2.06	0.98~9.45

		Retirement preparation	
		OR	(95% CI)
Clinical Career(years)*	〈10	Reference	
	10≤	1.84	0.53~2.88
The workplace	Dental laboratory	Reference	
	Public enterprises	2.53	0.56~4.08
	General Hospital	1.24	0.34~3.21
	Dental Clinic	1.91	0.09~2.85
Average monthly income(10000won)*	〈295	Reference	
	295≤	1.76	0.72~8.47
Currently living in houses owned by other real estate	Yes	Reference	
	No	0.68	0.29~1.75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s

Ⅳ. 고 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금융 불안으로 인한 개인 자산 관리의 어려움, 생활비와 교육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인 유교의식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은퇴와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정운영, 2009).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우울, 외로움, 고독, 빈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며,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홍성희와 곽인숙, 2006).

일의 특성상 치과기공사는 전문직으로 분류되나, 정해진 복지제도나 은퇴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특징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로 매우 높게 조사되어 응답자 대부분이 은퇴에 대한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치과기공사의 노후 준비 및 계획을 보면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과 준비 여부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후 경제준비율도 대략 34~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편(홍성희와 곽인숙, 2006)으로 노후 부양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고 인식하여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준비방법에 있어서는 폭넓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이희자와 김영미, 1996)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과 준비는 여유 금액이 없다(84.4%)는 이유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준비와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자신의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은퇴계획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의사의 은퇴예상 평균 연령이 61.0세였고, 은퇴를 위한 준비 자금은 평균 16.7억이었다(송근배 등, 2010). 본 연구에서 치과기공사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은 평균 59.1세, 희망하는 퇴직 시기는 59.4세로 60세 전에 경제적 은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평균 7.9억으로 나타나 치과의사보다는 은퇴는 조금 더 빨리하고 싶어 하고, 은퇴를 위한 필요 자금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위한 자금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간의 실질적 소득 차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치과위생사는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보통수준 이

상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심연수와 우희선, 2015), 본 연구에서는 45.5%만이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기공사는 보통수준 이하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재직기간, 월평균 총소득, 은퇴자금 총액수 등의 요인들이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제시되고 있는데, 재직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은퇴 자금의 총액수가 많을수록 은퇴자금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정운영과 배은경,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총 급여에서 노후 준비금 비중은 5% 미만(28.5%), 금액으로는 월 20만원 미만(36.1%)으로 조사되어 급여에 대한 노후 준비 금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계획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별, 은퇴시기와 나이,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소득 및 건강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은 은퇴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은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퇴 준비도 남성에 비해 먼저 시작할 수 있고 또 필요성도 크다고 한다(배문조와 전귀연, 2004). 본 조사에서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임상경력, 직장형태를 들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OR=1.65, CI[0.32~3.25]) 노후 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배 등(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35세 미만보다 35세 이상이(OR=2.11, CI[1.09~3.54]), 임상경력 10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이(OR=1.84, CI[0.53~2.88]) 노후 준비를 더 하고 있다고 나타나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10년을 기점으로 노후 준비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의 형태가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공기관(대학, 공무원, 연구원)(OR=2.53, CI[0.56~4.08]), 대학병원(OR=1.24, CI[0.34~3.21]), 치과병·의원(OR=1.91, CI[0.09~2.85])에서 근무할 때 노후 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기공소 내 작업장은 밀폐된 상태로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분진과 중금속 입자가 치과기공소 내의 모든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서 작업장의 환경이 좋지 않으며, 소규모 작업장으로 이루어진 치과기공소는 정년의 개념이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도희, 2006). 그에 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공기관이나, 대학병원은 정년이라는 개념이 확실하여 은퇴의 시점을 예견하고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적 준비 부분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조사 대상자를 지역별 비례대비 층화표본 추출하여 연령분포에서 은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노년층의 정보수집이 적었다는데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질병유무, 병원치료횟수 등의 척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의 노후 준비에 관한 조사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가입된 7,764명의 치과기공사를 지역별 비례대비 층화표본 추출하여 776명에게 리커트 5점 척도의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1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38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기공사가 희망하는 퇴직연령은 59.4세이고, 노년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은 60~70세(66.9%)이었다.

2.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는 54.5%,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는 여유 금액이 없어서(84.4%) 이었다.

3.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8.0%에 불과했고, 공적 연금을 제외한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저축 및 이자(33.6%), 사적연금(29.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생활 준비금은 7.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임상경력, 직장형태이었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들의 절반은 나름의 방법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나, 8% 정도만이 노후 계획에 만족했다. 만족스런 노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의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된다면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치과기공사를 위한 복지 정책 및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Bae MJ, Jeon KY.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Blakeley J, Riberio V. Are nurses for retirement? J Nursing Manag, 16, 744-752, 2008.

Cha KW, Park MY, Kim YJ.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paid workers aged 20s and 30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 26(1), 149-163, 2008.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7), 89-102, 2004.

Hong SH, Kwak IS.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Middle-Aged Salaried Workers' Retirement Plans: Economic Preparation and Health Care Plan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193-207, 2006.

Jang HS, Park SK, Yoo SJ. Demand and supply planning for the dental profession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3.

Jeon HS. The effects of the locus of control and Aging Anxiety on preparation for old age i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571-576, 2014.

Jeong WY, Baek EY. Causal Effects on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Retirement Preparations.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5(2), 115-139, 2009.

Kim DH. Workplace evaluation of dust and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dental laboratories. Cheonan; Soonchunhyang University, 2006.

Kim KS. Kuksiwon Yearbook. Seoul: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41-14, 2011.

Kim NS. Studies in the middle-aged workers' recognition of their retirement plan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2009.

Lee HJ, Kim YM. Comparison of Teenager's attitude of Supporting their Elderly Parents the Parents' preparation for old ag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2), 117-128, 1996.

Lee KS. Analysis of the nurse's stressors: Focused on Seoul City General Hospital. Seoul: Yonsei University, 1982.

Lee SK. Korean Dental Technicians' retirement attitudes and Related Factors. Kyunghee University, 1-100, 2013.

Kwak IS, Hong SH, Rhee KH. Types of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n and Financial Planning for Post-retirement Life among Salary Me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2), 21-42, 2007.

Maddox GL.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14-18, 1970.

Min BK. A study on Satisfactory Degree of Dental Laboratory Heads about Dental Technician Who graduated form Junior college in Seoul and Kyoung Gi.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11(4), 14-25, 1989.

Shim YS, Woo HS.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2), 179-88, 2015.

Song KB, Jeong SH, Chung SY, Park YD, Kwon HK, Choi YH. Attitude and planning for retirement by Korean dentis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4(2), 139-149, 2010.

Sung YA, Yang SJ. A Comparis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Their Determinant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03-117, 1997.